

전남 올 신입생 없는 초교 39곳, 1명 23곳

지난해보다 신입생 1345명 줄어
중학교 4곳도 '나홀로 입학식'
문 닫는 유치원·학교 5곳 달해
각종 노력에도 학령인구 절벽 가속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전남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수가 지난해보다 1340여 명이나 감소한 데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게 될 유치원·학교도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남지역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는 1만 5070명이다. 이는 지난해 초교 취학 예정자 1만6415명보다 1345명이 감소한 수치다.

초교 취학 예정자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신입생이 없어 오는 3월 입학식을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인 학교도 수십여 곳에 이른다.

올해 예상학급 기준으로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여수 여안초와 거문초, 나주 반남초, 고흥 영남초, 장흥 관산남초, 해남 현산남초, 신안 팔금초 등 본교 7곳, 분교 32곳 등 총 39곳이다.

여기에 신입생이 1명으로 '나홀로 입학식'을 치르게 될 초등학교 역시 본교 14곳, 분교장 9곳 등 23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학교도 고흥 봉래중 등 본교 2곳, 분교 2곳 등 4곳에 이른다.

섬 마을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남은 전체 초·중·고교 896곳 중 섬 학교 비율이 10.8%(97곳)에 이르고, 전체

학생 중 섬 지역 학생 비율도 1.5%(2874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신안 병풍도에 있는 증도초 병풍도 분교와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여수 안도에 있는 여남중 안도분교는 오는 3월 신입생이 없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완도 군외초 불목분교장과 병설유치원도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유치원·학교 등 5곳이 폐교한다.

전남의 소규모 학교들은 폐교만은 피해보기 위해 전학을 오는 가정에 무료 주택을 제공하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5년째 신입생 없이 전교생 1명으로 버텼던 강진북초는 유일한 학생이 올 2월계 졸업하게 되면서 사실상 휴·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동문들의 눈물 겨운 학생 유치로 일단 학교 운영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폐교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총동문회가 외국어와 음악, 미술, 무용 분야 등에 관심 있는 학생을 모집한 뒤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밖벗고 나선 덕분에 올해 신입생 1명이 입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생이 26명 뿐인 또 다른 '미니학교'인 화순 아산초는 전학을 오는 학생의 가정에 주택을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이 큰 섬 마을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섬지역과 도심 학생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입춘대길'...행복 기원 입춘방 쓰기 24절기중 첫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은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노인복지센터 서예반(회장 이무수) 회원들이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원생들과 주민들에게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섬진강 두꺼비 산란시기 한달 가까이 빨라져

산란 이동중 40마리 로드킬

광양만녹색연합 예방활동 강화

'섬진강' 두꺼비의 산란 시기가 한달여 가까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양만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8일 18마리, 29일 22마리의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road kill)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마리는 산란을 위해 이동하다 포획됐다.

섬진강 변에서는 주로 산에 서식하는 두

꺼비가 매년 2-3월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며 차량에 밟혀 죽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다. 올해는 지난해 2월 20일 시작됐던 산란시기가 25일 이상 빨라진 지난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로드킬 주의보가 발령됐다.

광양만녹색연합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 한 탓에 두꺼비의 산란시기가 앞당겨 졌다"며 "산란을 앞둔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찰, 광산·서부서에 사건관리과 시범운영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광주지방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으로 사건관리과를 시범운영 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부서 간 연결·조정·협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서와 서부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이르면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관리과는 경찰서 내 형사지원팀과 수사지원팀을 통합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의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한다.

일반 수사행정을 다루는 행정팀과 수사 절차와 유치인 관리 등을 맡는 사건팀으로 편성하고,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도 배치한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1월 말 정기인사에 맞춰 관련 인력을 편성하기 위해 경감급

사건관리과장 직위를 공모한 상태다.

광주경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책임 수사 실무추진단을 편성, 경찰개혁 추진과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를 준비 하고 있다.

또 중요사건을 수사 지도하고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수사심사관(경감)을 올 상반기 내에 각 경찰서별로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경감 이하 계급이 맡는 책임 수사 지도 관도 지방청 수사 심의체에 배치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심의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 시행 방안이 아직 경찰청에서 내려오지는 않아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확정 되지 않았지만, 정기 인사 시기 인력 편성을 마쳐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4 달뜨기 10:37
해질 17:58 달지기 22:51

아침 안개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2/10	보성	구름많음	-1/9
목포	흐림	3/7	순천	흐림	3/11
여수	구름많음	5/10	영광	흐림	1/8
나주	흐림	-1/9	진도	흐림	4/8
완도	구름많음	3/9	전주	흐림	0/9
구례	흐림	0/10	군산	흐림	0/9
강진	흐림	1/10	남원	흐림	0/9
해남	구름많음	0/8	흑산도	흐림	5/8
장성	흐림	0/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북)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남)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8 22:58
여수	05:50 18:26	12:16 --:--

◇주간 날씨

31(금)	2/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	☁	☁	☁	☀	☀	☁
1/7	-1/8	-1/8	-1/8	-1/9	-2/8	-3/5

◇생활지수

☁	높음
☁	감기
☁	높음
☁	뇌졸중
☁	보통
☁	미세먼지

광주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책자 배부

광주시 동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2020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의 안내책자를 만들어 13개동 주민센터와 지역내 복지시설에 배부·활용한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 민·관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법정 저소득가구 전수조사 3회, 구청 전 부서 협의회의 3회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2020년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수립된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생활 기준 ▲혹서기·혹한기대비 기

준 ▲교육 및 문화 기준 ▲돌봄대상 기준 등 4대 분야 48개 세부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안내책자는 저소득계층 복지기반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 일상생활 주요영역에서 동구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서구, 3세대 가구 '효드림수당' 지원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

광주시 서구가 효행장려 사업의 일환인 '효드림수당'을 지급한다.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거주하는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행복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를 작성,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

출하면 연 최대 3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효행문화 확산이 고령화시대의 노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